

## 임명 관련 개헌안 상정

2026년 3월 30일

앨버타주 정부는 고등법원 판사 임명에 있어서 주 정부에 발언권을 부여하는 개헌안을 상정할 예정이다.

*헌법* 1867 제 96 절에 따라, 주 고등법원 운영 책임이 주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고등법원 판사를 연방 정부가 임명하고 있다. 앨버타주의 이 발의는 앨버타주 주민을 위하여 봉직하는 판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앨버타주가 공식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이러한 현행 체계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.

이 발의가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, 캐나다 헌법의 개정을 요청하게 된다. 모든 변화는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. 앨버타주는 필요한 개헌의 상정 및 통과를 지지하도록 의회의 모든 정당에 촉구한다.

제안된 방식에 따르면, 모든 앨버타주 고등법원 판사는 앨버타주가 추천 및 승인한 후보 중에서 임명되며, 이는 선정 과정에서 앨버타주에 직접적 역할을 부여하게 된다. 이 방식은 사법적 독립성을 보호하며 사법 체계의 운영에 있어서 앨버타주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, 사법부 임명에 있어서의 주 정부의 명확한 발언권을 보장한다.

“앨버타주는 이 주에서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방식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고등법원 판사의 임명에 있어서는 직접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. 우리 법원들은 매일 앨버타주 주민을 위하여 일하고 있으며, 이 체계를 운영하는 주 정부는 마땅히 사법부에 판사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이 있어야 한다. 이 발의는 이러한 틈을 해소하고, 일반의 신뢰를 강화하며, 우리 주에서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방식에 있어서 앨버타주가 명확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.”

*대니얼 스미스 주수상*

캐나다는 판사 임명에 있어서 주 정부에 직접적 역할을 부여하는 다른 연방제 국가들과 다르다. 현재, 사법 관련 자문 위원회들이 판사를 임명하며, 이 위원회들은 지원자를 평가 및 심사하여 구속력 없는 권고안을 연방 정부에 제시하고 있다. 현행 절차는 판사 임명에 있어서 주 정부에 유의미한 발언권을 부여하지 않는다.

“모든 주 정부는 해당 주의 법원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발언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. 이 방식은 판사 임명 방식을 더 공정하게 만들며 더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절차를 지원하는 한편,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다.”

*미키 에이머리 법무 장관(Minister of Justice and Attorney General)*

대니얼 스미스 앨버타주 수상을 비롯하여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수상, 프랑수아 르고 퀘벡주 수상 및 스콧 모 서스캐처원주 수상 등은 고등법원, 항소법원 및 캐나다 대법원 판사를 선정하는 유의미하고 협업적인 절차를 요청하는 공동 서한을 마크 카니 캐나다 수상에게 보냈다.

이 계획은 법원이 앨버타주 지역사회들의 독특한 필요를 반영하도록 주 정부가 판사 임명에 있어서 더 강력한 역할을 맡도록 요청한 바 있는 앨버타주 넥스트 패널(Alberta Next Panel)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.

## 간추린 사실

- *헌법법 1867* 제 96 절에 따라, 앨버타주 고등법원 판사 임명 권한은 캐나다 총독이 가지고 있다.
- 이 안건이 통과되면 개헌을 요청하게 된다. 개헌안은 앨버타주 의회 및 연방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법으로 제정된다.
- 현재 고등법원 판사는 지원자를 평가 및 심사하여 구속력 없는 권고안을 연방 정부에 제시하는 사법 관련 자문 위원회들이 임명하고 있다.

## 관련 정보

- [앨버타주 넥스트 패널 권고안](#)

## 관련 뉴스

- [여러 주가 연합하여 사법부 판사 임명 개혁 추진 \(2026년 3월 24일\)](#)
- [앨버타주의 연방 사법부 판사 임명: 스미스 주수상 및 에이머리 장관 \(2026년 2월 3일\)](#)

## 멀티미디어

- [기자 회견 시청](#)